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조 영 재

부산대학교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표현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울산시에 소재한 1개 전문대학교의 전체 대학생(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내현적 자기애성향,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Sobel Test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성향,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대인관계문제는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하위요인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분노통제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분노표현(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있는 남자대학생이 대인관계문제를 보일 경우 내현적 자기애성향 자체에 대한 개입과 분노표현양식의 매개를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연구결과에 기초한 논의 및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성향, 대인관계문제, 분노표현(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 본 연구는 조영재(2012년도)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1103호
Tel: 02-760-0558, E-mail: dhlawrence05@gmail.com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정체성이 확립되고, 건전한 성격발달이 이루어지며, 인간의 욕구만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인관계는 매우 복잡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과 고통이 대부분 대인관계문제에서 파생되기도 한다(권석만, 1997). 특히 대학생 시기인 성인초기의 대인관계는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다(Erickson, 1968). 만약 이 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 부적응 그리고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되며, 자아존중감과 정체감 확립에 큰 방해 받는다(유선림, 황해자, 2005).

대인관계문제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다루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권석만, 1997). 이와 같은 관계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은 갈등과 고립감을 일으켜 대인관계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고립감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되어, 우울, 욕구좌절, 소외, 불안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권석만, 1995). 특히 서수균(2007)은 대인관계문제는 정서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노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고등교육연구(2008)에 따르면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공학계열 전문대학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으며, 전문대학 전체에서도 공학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성별비율도 남학생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나날이

높아지는 남자전문대학생에 대한 관심에 비해 남자전문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문대학생을 대신하여 전문대학의 출신비율이 높고, 전문대학생들이 지닌 낮은 사회적 인식,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등의 특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되는 전문계고등학생의 선행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생의 대인관계특성을 유추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계 고등학생은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비율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현저히 높으며(김현임, 2002), 결손 가정률이 2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구조적 결손이 매우 심하다(최미자, 2002). 또한 누적된 학업실패의 경험으로 자아존중감이 발달하지 못했고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한 무력감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문제가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훨씬 높다(강희라, 2005). 또한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의 결여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더불어 내현적 자기가 지닌 가장 큰 특성으로 볼 수 있다(박세란, 2004). 그리고 이러한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낮은 자존감에 대한 손상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 반응은 분노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백승혜, 2008).

특히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인 개인주의, 자기중심성과 자기에적 집착은 대인관계에 있어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에적 성격으로 가장 손상 받는 영역이 바로 대인관계 영역이다(권석만, 한수정, 2010). Lasch(1991)는 빠른 변화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자기충족 욕구를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기에적 사회’라고 명명하며,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특성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애적인 성향을 지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향의 특징인 지나친 정서적 극단성, 자기중심적 행동, 공감능력 결핍은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고 관계에서 소외감을 초래하여 대인관계에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한다(권석만, 한수정, 2010).

그러므로 현대인의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애성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자기애성향이란 건강한 자기애가 아닌, 자기과장적이고 자기-몰두적인 성격유형을 말한다(박세란, 2004). 이러한 자기애성향은 대인관계에서 자기 몰두적인 경향으로 인해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타인에게까지 관심을 확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자기애성향은 적대감(서수균, 2007), 정서 극단성(Emmons, 2003), 권력욕구(곽진영, 하은혜, 2010), 주장성(이계정, 정남운, 2005) 등과 같은 변인들과도 관련이 있고, 이러한 변인들은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Dickinson & Pinkus, 2003).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역기능적인 주된 특징은 과대성(Freud, 1914)과 공감능력의 결핍(Kernberg, 2008; Ogrodniczuk, 2009)이다. 과대성은 우월, 독특함, 과장된 재능 등의 비현실적인 생각들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상대방의 특별한 호의를 기대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성공의 공상에 몰두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자기애성향은 대인관계에 장애로 나타난다. 이처럼 자기애성향자들은 상대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켜 단절과 고립을 초래하고, 이것은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

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능력의 결핍으로 나타난다.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연구에서 Robbins와 Dupont(1992)는 과장되고 노출적인 자기애성향자는 대인관계에서 지배적이고 우호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면서, 이상화 욕구가 높은 자기애성향자는 순종적이면서도 다소 적대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Emmons(2003) 역시 자기애성향자는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지배적인 성향이 높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성향도 높음을 밝혔으며, 친구보다는 권력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자기애성향자들이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권석만, 서수균, 2002; 박진숙, 2007; Dickinson & Pinkus, 2003; Ogrodniczuk, 2009).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자기애성향은 드러나는 표현양상에 따라 크게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된다(강선희, 정남운, 2002; Atlas & Them, 2008;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는 거대한 자기표상 및 자기과시의 경향이 특징이고,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핵심특징으로 가지고 있다(정남운, 2001).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이 더 높으며, 우울과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박세란, 2004; 박진숙, 2007; 정남운, 2001). 외현적 자기애는 자존감과 창조성 등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적응적인 면도 있지만(Emmons, 2003), 내현적 자기애는 우울, 낮은 자존감, 혼란된 대상관계, 피학성과 적대감에 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다(Besser & Zeigler-Hill, 2010).

국내에서는 주로 외현적 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이원희, 2005), 그 이유는 현재 성격장애의 분류체계인 DSM-IV에서 외현적 자기애 특성만을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최근 내현적 자기애의 부적응적인 면이 많이 알려지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는 있으나(박세란, 2004)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신경증적 경향성, 비우호적이고 회피적인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백승혜, 2008). Cooper(2000)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비판과 비난을 막기 위하여 타인의 말과 행동에 자신에 대한 비난의 단서가 있는지에 대해 민감해하며, 공격이나 비난 받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단호한 의사표현을 회피함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인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우울, 낮은 자존감, 적대감, 지배성 등에 외현적 자기애성향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인관계문제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인 자기중심성과 정서적 극단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가 바로 분노감정이다(권석만, 서수균, 2002). 건강한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역기능적인 분노는 개인의 목표 추구를 방해하거나 욕구를 좌절시키는 사

람에 대한 공격행동을 유발한다(Kalat & Shiota, 2007). 이렇게 분노는 주로 다른 사람에 의한 욕구 좌절에 의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공격행동을 야기하는 정서이고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적 정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Averill, 1983), 분노는 일차적으로 대인관계적 기능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서이다. 정남운(2001)도 인간은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개인에게 정서적·신체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부정적 정서경험 중 가장 핵심적인 정서가 분노라고 하였다. 적절한 분노표현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알게 하여 관계를 개선시키는 적응적인 면도 있지만 분노가 역기능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결국 대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Baumeister & Exline, 2000). 박진숙(2007)은 내현적 자기애성향 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문제를 연구하였는데,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가진 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은 대인관계 문제와 높은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분노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분노의 표현 양식에 따라 대인관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분노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느냐가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서수균, 2007).

분노표현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통제는 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반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과도한 분노 표출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켜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Baumeister & Exline, 2000). 반대로 분노를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분노억제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신경증 같은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백승혜, 2008). 따라서 분노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발달시키는 일은 대인관계문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자기애성향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좌절감과 분노를 자주 느낄 가능성이 높다(권석만, 한수정, 2000). 또한 높은 수준의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추구하지만, 현실은 그에 못 미치므로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 강한 분노나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이원희, 2005). 특히 부정적 단서에 대해 자존감이 쉽게 하락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겉으로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려는 동기도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 개념을 방어하기 위해 분노나 공격 반응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강일선, 2006).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공격했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 격렬한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는 자기애성향자들은 외부 단서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지나친 정서적 극단성을 보인다. 특히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경험하고 이를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Bushman & Baumeister, 2004; Papps & O'Carroll, 1998). Pappas와 O'Carroll(1998)은 높은 수준의 자기애성향을 보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 보고식 척도에서 더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기애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웅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부정

적인 평가에 과민하며 이에 대해 분노와 보복 행동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고(Bushman & Baumeister, 1998), 백경림(2009)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기애성향 집단이 분노표출 수준이 높고 분노를 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언어적 공격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혜(2008)의 연구를 보면,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과 내현적 자기애성향자 모두 분노경험수준이 높지만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경우에는 분노를 느낄 때 분노표출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분노를 억압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일상적인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에는 예민하지만, 그 피드백에 즉각적인 정서경험을 하지 않고 분노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준득, 2005). 서수균과 권석만(2002)은 자존감을 통제된 후에도 자기애성향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높은 자기애성향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기에 더 심한 좌절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러한 좌절이 상대방에게 적대감과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제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즉 자기애성향자들의 높은 수준의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문제, 대인관계문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Atlas & Them, 2008). 또한 불안신경증과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병리에도 상관이 있다(Anderson & Malico, 1994). 특히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보다 타인에게 더 민감하고, 위축되며, 소심하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좌절과 분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극단적 정서반응으로 인한 분노표출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언어적인 공격행동과 적대감, 높은 긴장감과 충동성을 나타내고 있다(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반면 자신이 느낀 좌절과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분노억제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우울감과 절망감, 자살 위험성이 높았으며 낮은 자아강도와 주장성 등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Kernberg, 2008; Pappas, O'Carroll, 1998).

내현적 자기에의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분노표현양식을 매개로 한 국내논문은 매우 소수이며(백승혜, 2008), 다루고 있는 관련 변인이 우울, 애착 등과의 변인 탐색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대인관계문제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게 되는 사회구조상의 이유로 대인관계문제의 대처유형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하영운, 1996). 여성과 남성 모두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있지만 여성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소규모 집단 내의 관계를 원하는 반면, 남성은 사회적으로 가까운 직장과 같이 보다 큰 집단 내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크다(Baumeister & Exline, 2000). 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유사한 역할이 요구되고 여성적 관계표현으로 보여지는 공감과 배려와 같은 특성에 대한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황수민,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남자 전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대인관계문제를 매

개하는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탐색은 남자대학생들의 건강한 자기개념을 형성해가고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통해 주요 발달 과제인 대인관계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남자전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성향, 분노표현양식 및 대인관계문제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2) 남자전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소재한 U 전문대학 공과대학캠퍼스 소속 전체 대학생(1, 2학년) 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공과대학의 특성상 재학생의 남녀 간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며, 본 연구대학 총 재학생의 99%(678명)가 남학생으로 구성된 공과대학캠퍼스 특성상 남자대학생만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48%(158명), 2학년 52%(16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별로는 20~29세이며 평균연령은 23.8세였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에 성향(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

(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는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은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이란 목표설정의 어려움과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이란 사람에게 주목받고 칭찬 받으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착취자기중심성이란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특권의식, 자기중심성을 의미하며 과민취약성은 자신을 불행하고 무가치하게 느끼며 평가에 예민한 취약성을 의미한다. 소심·자신감부족이란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불안정이 .9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이 .82, 착취자기중심성이 .78, 과민취약성이 .84, 소심·자신감 부족이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목표불안정이 .88,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이 .75, 착취자기중심성이 .78, 과민취약성이 .82, 소심·자신감 부족이 .76이었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전경구(1998)가 번안,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 요인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로 영역당 8개 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분노표출은 자신의 화난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나타내는 것이며 분노억제는 화난 감정을 자기내부로 돌리거나 억압함을 의미하며, 분노통제는 화를 진정시키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구(1998)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분노표출은 .74, 분노억제는 .73, 분노통제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분노표출은 .78, 분노억제 .81, 분노통제 .72이었다.

대인관계문제 원형(Interpersonal

Problems-Circumplex: IIP-C)

정남운(2001)이 구성한 대인관계문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 영역당 8개 문항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요인 중 통제지배는 타인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자기중심성은 타인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의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냉담은 애정표현이나 감정표현에 서투르고 친밀감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억제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위축되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비주장성은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타인에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순응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득당하고 이용당하기 쉬운 경향을 의미한다. 자기희생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과관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참견을 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정남운(2001)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

이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통제지배 .86, 자기중심성 .76, 냉담 .89, 사회적 억제 .84, 비주장성 .86, 과순응성 .80, 자기희생 .84, 과관여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7이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통제지배 .85, 자기중심성 .84, 냉담 .88, 사회적 억제 .88, 비주장성 .87, 과순응성 .83, 자기희생 .67, 과관여 .75였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11년 12월 중 울산광역시 소재한 1개의 전문대학교 내 4개 학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678명 중 9명만이 여학생인 본 공과대학캠퍼스의 특성상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질문지 348부를 배부하였다. 응답자 348명의 데이터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27명을 제외한 32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도 및 첨도를 구하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성향, 분노표현(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와

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예측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분노표현(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Sobel Test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내현적 자기애성향,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및 대인관계문제의 기술통계량

내현적 자기애성향,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기술통계량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1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성향,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분노표출($r=.41, p<.00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분노억제($r=.67, p<.001$)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분노통제 $r=-.24, p<.001$ 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r=.77, p<.001$)는

표 1.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321)

변인		M	SD	왜도	첨도
내현적 자기애성향	목표불안정	23.14	6.96	0.02	-0.13
	인정욕구	27.70	5.12	0.08	0.29
	착취자기중심성	20.58	5.42	0.11	-0.45
	대인취약성	24.56	6.89	0.57	2.20
	소심	21.10	5.01	0.34	0.33
	전체	117.09	22.16	0.17	0.29
분노표현양식	분노표출	16.45	3.79	0.29	-0.38
	분노억제	15.65	3.95	0.23	-0.07
	분노통제	23.31	3.61	1.73	13.55
대인관계 문제	통제지배	16.60	5.53	0.49	-0.29
	자기중심성	17.14	5.30	0.47	-0.02
	냉담	17.00	5.83	0.50	-0.29
	사회적억제	17.53	6.15	0.33	-0.51
	비주장성	19.03	5.93	0.11	-0.51
	과순응성	19.08	5.66	0.10	-0.43
	자기희생	20.36	4.26	0.07	0.31
	과관여	20.14	4.79	0.07	-0.03
	전체	146.89	36.70	0.21	-0.22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분노표현양식의 하위요인들과 대인관계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분노표출과 대인관계문제($r=.43, p<.001$), 분노억제와 대인관계문제($r=.63, p<.001$)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분노통제와 대인관계문제($r=-.30, p<.001$)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매개효과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

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 단계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먼저 1단계에서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모든 변인들을 같은 방정식에 투입이 되었을 때, 이러한 관계들이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표 2. 내현적 자기이성형,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계수 (N=3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목표불안정	.																	
2. 인정 욕구 거대자기황상	.06	.																
3. 학위자기중심성	.48***	.31***	.															
4. 과민취약성	.59***	.40***	.68***	.														
5. 소성 자신감 부족	.60***	.16**	.47***	.65***	.													
6. 내현적 자기여 권위	.77***	.40***	.78***	.90***	.77***	.												
7. 분노표출	.31***	.12*	.44***	.41***	.21***	.41***	.											
8. 분노의제	.50***	.21***	.50***	.66***	.61***	.67***	.48***	.										
9. 분노통제	-.23***	.06	-.26***	-.21***	-.19***	-.24***	-.38***	-.26***	.									
10. 통제저비	.44***	.15**	.67***	.63***	.30***	.62***	.58***	.51***	-.37***	.								
11. 자기중심성	.57***	.06	.69***	.66***	.56***	.69***	.44***	.58***	-.31***	.78***	.							
12. 냉담	.58***	.04	.64***	.66***	.66***	.70***	.37***	.58***	-.20***	.69***	.87***	.						
13. 사회과외적	.57***	.06	.57***	.63***	.71***	.69***	.31***	.58***	-.23***	.61***	.80***	.89***	.					
14. 비주장성	.58***	.14*	.56***	.64***	.70***	.71***	.38***	.56***	-.23***	.54***	.73***	.77***	.83***	.				
15. 과수동성	.47***	.17**	.40***	.61***	.69***	.65***	.29***	.53***	-.19***	.50***	.65***	.68***	.74***	.81***	.			
16. 자기회성	.41***	.25***	.46***	.60***	.55***	.61***	.33***	.50***	-.22***	.58***	.63***	.61***	.63***	.73***	.78***	.		
17. 과관대	.20***	.36***	.47***	.51***	.32***	.52***	.30***	.38***	-.17**	.63***	.51***	.42***	.43***	.48***	.57***	.73***	.	
18. 대인관계 문제 권위	.59***	.17**	.68***	.73***	.60***	.77***	.43***	.63***	-.30***	.79***	.89***	.89***	.89***	.88***	.83***	.83***	.85***	.69***

*p<.05, **p<.01, ***p<.001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이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감소하여도 유의하다면 부분매개를, 완전히 유의성이 사라진다면 완전매개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문제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효과와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을 통제 한 후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모든 단계의 검증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분노표출에 대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분노표출($F=62.971, p<.001$) 및 대인관계문제($F=476.419,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분노표출은 대인관계문제($\beta = .143, t=3.767,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노표출을 통제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beta = .716, t=18.826, p<.001$)는 1단계에서의 내현적 자기애($\beta = .774, t=21.827, p<.001$) 보다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전체 설명력은 1.7%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인 분노표출이 통제되었을 경우 내현적 자기애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분노표출은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인 분노표출에서 준거변인인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b)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므로 Sobel test(1982)를 시행하였다. 분노표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b값에 대하여 Z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분노표출의 매개효과 ab는 .096이고 $Z=3.384$ 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 1.96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분노표출을 통제하였을 때 내현적 자기애($\beta = .716, t=18.826, p<.001$)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분노표출은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분노억제에 대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분노억제($F=262.235, p<.001$) 및 대인관계문제($F=476.419,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분노억제는 대인관계문제($\beta = .202, t=4.329,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노억제를 통제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beta = .638, t=13.706, p<.001$)는 1단계에서의 내현적 자기애($\beta = .774, t=21.827, p<.001$) 보다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전체 설명력은 2.2%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인 분노억제가 통제되었을 경우 내현적 자기애의

표 3.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및 대인관계문제의 중다회귀분석

매개 변인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R ²	F	B	SE	β	t
분노 표출	1	대인관계 문제	내현적 자기애	.599	476.419***	1.282	.059	.774	21.827***
	2	분노 표출	내현적 자기애	.165	62.971***	.069	.009	.406	7.935***
	3	대인관계 문제	내현적 자기애 분노 표출	.616	255.152***	1.185 1.388	.063 .368	.716 .143	18.826*** 3.767***
ΔR ² = .017									
분노 억제	1	대인관계 문제	내현적 자기애	.599	476.419***	1.282	.059	.774	21.827***
	2	분노 억제	내현적 자기애	.451	262.235***	.120	.007	.672	16.194***
	3	대인관계 문제	내현적 자기애 분노 억제	.621	260.822***	1.057 1.875	.077 .433	.638 .202	13.706*** 4.329***
ΔR ² = .022									
분노 통제	1	대인관계 문제	내현적 자기애	.599	476.419***	1.282	.059	.774	21.827***
	2	분노 통제	내현적 자기애	.057	19.242***	-.039	.009	-.239	-4.387***
	3	대인관계 문제	내현적 자기애 분노 통제	.613	252.116***	1.233 -1.253	.059 .365	.745 -.123	20.734*** -3.428**
ΔR ² = .014									

*p<.05, **p<.01, ***p<.001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분노억제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분노억제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인 분노억제에서 준거변인인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b)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므로 Sobel test(1982)를 시행하였다. 분노억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b값에 대하여 Z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ab는 .225이고 Z=4.198으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분노억제를 통제하였을 때

내현적 자기애($\beta = .638, t = 13.706, p < .001$)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분노억제는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분노통제에 대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분노통제($F = 19.242, p < .001$) 및 대인관계문제($F = 476.419,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분노통제는 대인관계문제($\beta = -.123, t = -3.428,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노통제를 통제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beta = .745, t = 20.734, p < .001$)는 1 단계에서의 내현적 자기애($\beta = .774, t = 21.827, p < .001$) 보다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전체 설명력은 1.4%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인 분노통제가 통제되었을 경우 내현적 자기애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분노통제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분노통제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인 분노통제에서 준거변인인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b)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므로 Sobel test(1982)를 시행하였다. 분노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b값에 대하여 Z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분노통제의 매개효과 ab는 .049이고 $Z = 2.691$ 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 1.96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통제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분노통제를 통제하였을 때

내현적 자기애($\beta = .745, t = 20.734, p < .001$)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분노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자 전문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성향, 대인관계문제,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여 높은 대인관계문제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대감이 높고, 친밀감이 부족하며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나타낸다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석만과 한수정(2000)의 연구와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비우호적이고 회피적인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남운(2001)의 연구를 지지한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지배성향이 높으며 자신의 우월성을 위협하는 사람은 평가 절하한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Campbell과 Baumeister(2006)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내현적자기애에 대해 성별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강일선(2005)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을 뿐 성별보다는 주로 외현적 자기에와의 차이점을 둔 연구가 많았으며(백승혜 2008; 서수균, 2007; 조은영, 2011), 내현적자기애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인관계문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남녀에 있어서 대인관계문제가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도 있는 반면(이정연, 2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인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김현숙, 2000). 김혜령(2003)에 따르면 국내 전문대학생들이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장은 재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성향은 분노표현의 하위영역인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분노통제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분노표현의 하위영역에서 분노억제가 분노표출에 비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지닌 특성상 두 변인 모두와 상관이 높다(강일선, 2005; 백경립, 2009; 백승혜, 2008; 조은영, 2011; 최임정, 2010). 우선 분노표출과 관련하여선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손상당했을 경우 극도의 분노반응을 표출함으로써 그 감정을 피하려 한다(Chapman, Garatz & Brown, 2006). 또한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는 실제적, 자기-이상적 자기의 불일치감이 크므로, 이상적 자기라고 믿

었던 자기의 거짓된 자아가 위협받거나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협감 때문에 분노표출을 보이는 것이다(백승혜, 2008).

또한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화가 나는 것을 자주 느끼지만, 타인에 대한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분노감정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는 성향도 함께 있으며 이러한 분노억제는 분노표출보다 더 높은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화가 나는 것을 자주 느끼지만, 타인에 대한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분노감정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며,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의 분노표현양식에 있어 분노표출보다 분노억압이 높다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승혜(2008)와 이준득(2005)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는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만,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는 분노를 느낄 때 분노표출보다는 분노를 억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Cooper(200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한편 분노표현양식의 하위변인인 분노통제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분노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책략을 구사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기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통제가 내현적 자기에의 착취, 자기중심적인 요소와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동성과 공상에의 몰두, 외부에 대한 평가민감성으로 대표되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요인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거나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요인과는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국내의 선행연구결과(박진숙, 2007, 백승혜 2008, Papps & O'carroll,

1998)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분노를 많이 경험하지만 그 표현을 억누르기 때문에 행동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만성적인 분노 상태로 머물게 됨으로 분노에 잘 대처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며, 부적절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한다.

분노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Kring(2001)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강한 정서체험과 생리적 반응을 보이며 분노와 관련된 정서표현을 더 잘한다고 하였다. Averill(1983)의 연구에서는 분노와 관련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한동화(2009)는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과 표현이 더 많고 구체적으로 분노 표출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

셋째, 분노표현양식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분노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표현양식 중에서 분노억제가 대인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를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억제가 높은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습관적으로 억제하고 적대감이 높으며, 스스로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하다는 Gross와 John(2003)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분노억제가 높은 사람은 내부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지속적인 내적 긴장 상태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지지나 수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하여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Mongraine과 Vettese(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상관성이 높은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이계정, 정남운, 2005).

분노표출도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를 표현함에 있어 자기중심적으로 지각하고 행동하고, 분노표출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노표출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역할성향에서 지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표현성향에서도 공격적이고 과시적인 대인관계문제를 나타낸다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준득(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분노표출이 높은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공격성과 충동성, 주장성이 높고 지배욕구가 강해 자신의 분노를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표출하거나, 보다 약한 대상에게 대리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Berkowitz(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분노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분노통제가 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타인을 조정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타인을 이해하고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노통제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아강도가 높고 분노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감정을 통제하거나 평정을 회복하는 수준이 높다는 Carter와 Minirth(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노통제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표현양식의 하위요인인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효과도 보이지만 분노표출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성향자들이 진정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기 보다는 '상대를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를 표출하여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는 자기중심성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석만과 한수정(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석만과 서수균(2002)의 연구에서 자기애성향, 자존감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통제하였을 때,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표출과 대인관계문제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분노표출을 일으키고 이러한 분노표출이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효과도 보이지만 분노억제를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려고 하기보다 자기내부로

향하도록 하여 타인에게 냉담해지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철회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순응적이고 의존적 대인관계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억제가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박진숙, 2007, 백승혜, 2008, Dickinson, 2003)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세란, 2004)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평가 민감성이 만성적인 분노를 유도하면서도 분노를 억제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노억제는 타인에 대한 반응과 평가 민감성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대인관계회피를 초래한다고 보고한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평가민감성이 분노억제를 유발하고 타인에 대해 자기 감정과 표현을 억누르게 하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타인에 대한 지나친 순응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분노억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분노억제가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효과도 보이지만 분노통제를 매개로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를 느낄 때 적절한 분노통제를 하게 되면, 분노통제가 화가 난 상태를 지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는 다

양한 책략을 구사하여,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Gottlieb(1999)의 의견과 일치한다.

본 연구와 논의들을 종합했을 때,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대인관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분노표현양식인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를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문제에 어려움을 상담 장면에서 다룰 때 분노표현양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분노표현에 있어 역기능적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는 분노통제능력을 신장함으로써 부적합한 분노표현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생의 경우 학력위주의 사회로 인해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높고 짧은 교육기간과 취업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일반대학에 비해 자신의 적성과 삶의 목표, 대인관계를 돌아보는 기회가 부족하다(최기창, 2003).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열등감과 불안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특징인 소심함, 자신감부족과 인정욕구, 목표불안정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이 다른 일반 대학생보다 더 높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성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높은 대인불안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비판적이고 몰두적이며 적대적인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박진숙, 2007).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지닌 전문대학

생들의 학교적응이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미한 상태이며(유영미, 2011), 적절한 대인관계문제 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 또한 대부분이 전문대학생이 아닌 일반 대학생이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생은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열등감이 높으며 2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과 취업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충분한 자기이해와 다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배워갈 환경이 부족하다. 이렇듯 전문대학생들의 열등감과 취약한 자기개념은 인정욕구와 좌절감 등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이것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특성상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분노조절을 통한 원만한 대인관계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명확한 자기개념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높은 열등감과 지나친 인정욕구를 보이는 자기애성향의 남학생들에게 분노조절에 의한 분노통제양식을 통해 자기감정에 대한 이해와 자기존중감을 높여주는 분노표현훈련 교육도 필요하다. 남자대학생들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다면 분노의 감정이 유발되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적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과정을 보다 정교화 하였고,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가진 남자대학생이 대인관계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시의 1개 전문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전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하위유형 및 성별에 효과를 살펴보지 않았다. 또한 측정 도구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지닌 평가 및 반응예민성과 자기중심적 시각으로 인해 부정, 혹은 과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문대상자들이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거나 과장할 수 있는 긍정적 왜곡의 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자기보고와 함께 관찰자 평정에 의한 방법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후속연구에서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수행되어 여러 한계들을 가질 수 있으며 종단적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분노표현양식 외에도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대인관계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0.

강일선 (2006). 자기애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606-607.

강희라 (2005).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진영, 하은혜 (2010).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교, 7(3), 315-331.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적절성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 38-63,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권석만 (1997).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권석만, 서수균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권석만, 한수정 (2010).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135-1143.

김기석 (2008). 한국고등교육연구. 교육과학사.

김현숙 (2000). 청소년 애착과 지각향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임 (2002). 복교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령 (2003). 전문대학생의 애착유형 및 자아존중감 수준과 대인관계 성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세란 (2004).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박진숙 (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 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문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림 (2009).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분노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혜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분노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 임상, 27(4), 1001-1017.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유선림, 황해자 (2005).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30, 75-93.
- 유영미 (2011). 학생 차원 전문대학교육 효과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사회학연구, 21(4), 181-203.
- 이계정, 정남운 (2005).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55-69.
- 이원희 (2005). 자기애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9-36.
- 이준득 (2005).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정연 (201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대인관계간의 상관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 (2011).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과 전위공격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1998). 분노에 관한 기초 연구. 재활심리연구, 6(1), 73-190.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최기창 (2003). 전문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업성취/동기유발에 관한 연구. 산업개발연구, 10, 35-42.
- 최미자 (200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임정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한동화 (2008).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연구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2), 109-128.
- 하영운 (1996). 대학생의 자아강도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8, 99-119.
- 황수민 (2010). 애착과 대인관계: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67-86.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nderson., & Malico, R. (1994). Anger Management Using Cognive Group Therapy.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30(3), 17.
-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 62-76.
- Averil, J. R. (1983). Studie sonanger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45-1160.
- Baron, R. M. and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1(6), 1986, pp. 1173-1182.
- Baumeister, R. F., & Exline, J. J. (2000). Self-control, morality, and human streng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9-42.
- Berker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503.
- Besser, A., & Zeigler-Hill, V. (2010). The influence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emotional and motivational responses to negative events: The roles of visibility and concern about humili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4), 520-534.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2004). Human Nature and Aggressive Motivation: Why Do Cultural Animals Turn Violent? *Journal of Revue Internationale de Psychologie Sociale*, 17(2), 205-220.
- Campbell W. K., & Baumeister R. F. (2006).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isher J. E., o' Donohue W. T., editors. Practitioner's guide to evidence-based psychotherapy. *New York: Springer*; 423-431.
- Carter, L., & Minirth, F. (1993). *The Anger-Workbook*.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 Cauti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t*, 36, 163-170.
- Champman, A. L., Garatz, K. L., Brown, M. Z. (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4, 371-394.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Dickinson, K. A., & Pincus, A.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17, 188-207.
- Emmons, P. A. (2003). Narcissists as "victims": The Role of Narcissism in the Perception of transgre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7), 885-893.
- Eric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Wiley
- Freud, S. (1914).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Collection Works. Vol. 95*.
- Gross, J. J.,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Kalat, J. W., & Shiota, M. N. (2007). *Emotion*. Australia: Thomson(민경환, 이옥경, 김지현, 김민희, 김수안 역. 정서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 Kernberg, O. F. (2008).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윤순임 역): 서울. 학지사.
- Kring, A. M. (2001). Emotion and Psychopathology. In J. J Mayne, & G. A. Bonanno(Eds.), *Emotion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New York: Guilford.
- Lasch, C. L. (1991)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 York: Norton.
- Mongraine & Vettese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545-555.
- Ogrodniczuk, J. S. (2009). Interpersonal problems associated with narcissism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3(9), 837-842.
-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re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21-231.
- Spie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pp.203-222). NY: Springer Verlag.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1차 원고접수 : 2013. 03. 28.

수정원고접수 : 2013. 08. 27.

최종게재결정 : 2013. 11. 07.

Medi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s in the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Male College Students

Young Jae Jo

Pusan National University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anger expression (anger-out, anger-in, anger-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321 male college students in Ulsan metro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covert narcissism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ger-out, anger-i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vert narcissism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nger-control. Anger-out and anger-in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problems. And anger-control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ly, anger expressions(anger-out, anger-in, anger-control)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Additionally, covert narcissism exerts a direct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Anger expressions(anger-out, anger-in, anger-control), Interpersonal problems